

국회 후반기 원구성 또 장기 표류하나

14~20대 기일내 완료 한번도 없어
핵심 노론자 법사위 쟁탈전이 변수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법정 기일 내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4~20대 국회 전반기까지 기일 내 원이 구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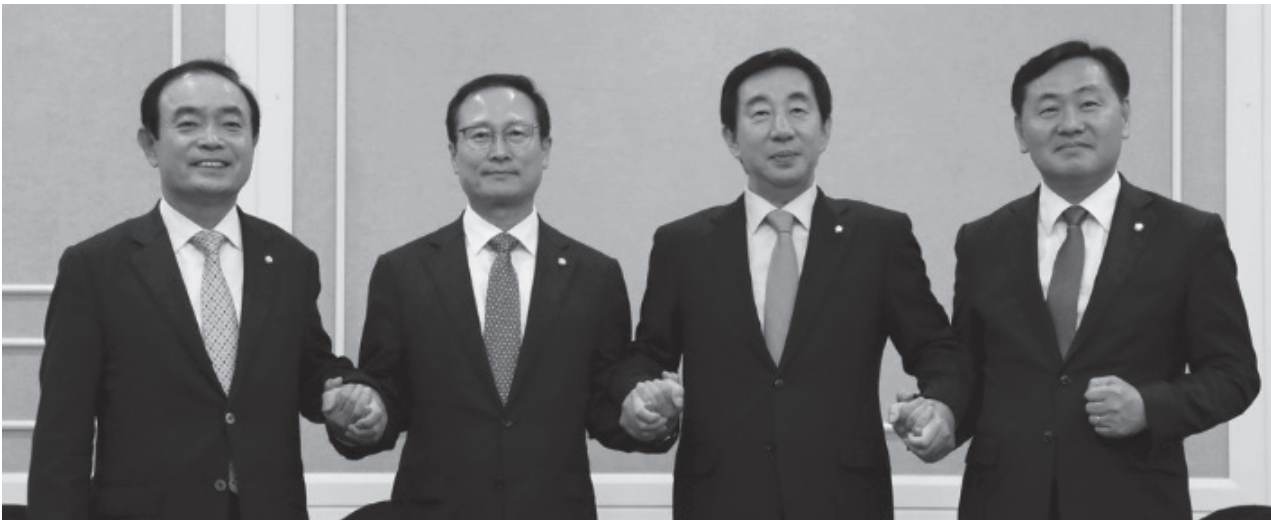
여야 5당 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했지만 서로 시각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45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급적이면 7월 초순에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규제완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한목소리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7월 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회의 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견해



장병완 민주당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차가 커 원만히 합의할 지 미지수다.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줄다리기와 법정기일 위반이 일관적인 공식처럼 돼 있어 이번 하반기 국회도 상당기간 ‘공전’이 예상된다.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보니 여야 지도부는 유리한 상임위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이다.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이나 국회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국회법이나 국회 규칙에 상임위 정수만 나와 있을 뿐 여야가 어떻게 상임위를 배분할지 정해진 게 없다. 그동안 국회는 운영위를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곤 했다. 정해진 룰이 없다보니 임기동안 주도권을 유

리하게 잡기 위한 기 싸움이 원 구성 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원 구성 지연은 국회 신뢰도 하락과 연결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 구성은 국회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지연사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 법사위를 한국당으로부터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지난 국회 때마다 여야는 핵심 노론자인 운영위와 법사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최근 18·19대 국회 원 구성을 보면, 운영위는 여당 몫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쥐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정부를 견당한 야당의 공세를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사위도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최종 관문인 핵심 상임위다. 국회법에 따라 극히 제한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외하고 법사위가 의결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야 간 쟁점인 법안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관례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야는 일단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민감급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선출 등 입법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의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벌써부터 오는 17일 제헌절 70주년을 입법부 주장인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

2금융권 대출 억제책 본격 가동 청년 소액신용대출 100만원 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이달부터 줄줄이 도입된다. 청년·노년층은 대부업체 소액 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탁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심심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된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대출을 심사

할 때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된다.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9월에는 대출금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 실손상품을 일반 개인 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나온다.

면허취소 위기 진에어 사원채용 논란

직원 대규모 이탈 대비 사전포석

진에어가 국토부가 면허 취소 징계 처분을 연기하자 서둘러 인재 확보에 나섰다. 면허 취소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직원들의 대규모 이탈을 대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달 29일 오후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서울 신입 승무원을 총원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모집 기한은 5일 저녁 6시까지다.

특히 이번 채용은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결정이 연기된 지 30분 만에 총원 공고를 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결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이 깊어져 이직을 고려하자 이를 염두한 인력 총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진에어 소속 1900여 명은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여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당장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에어 객실 승무원들은 청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면허 취소 징계 결정이 연기되자 가장 먼저 인재 확보에 나섰다.

바지 유니폼에 대한 불만도 깊다. 진에어가 취항 1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유니폼 교체가 디자인과 실용성을 무시한 작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

어수선한 회사 사정과 맞물려 유니폼 불만까지 쌓여 상당수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소연 기자 ksy@

호주법원 “LG전자 품질 보증 정책 소비자 오도”

품질보증 항소심서 ACCC 손 들어줘

호주연방법원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LG전자의 품질 보증 관련 항소심에서 ACCC의 손을 들어줬다.

4일 호주 일간지 캐린스 포스터(The Cairns Post)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ACCC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품질 보증 소송에서 회사에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품질 보증 정책에 대해 현행법에 어긋나는 허위 진술을 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CCC는 현행법과 달리 LG전자가 TV 구매자들에게 보증 기간이 끝나면 무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 기

간 이후에는 환불이나 제품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ACCC는 이 같은 LG전자의 품질 보증 정책이 호주의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보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이 불만족스러울 시에는 추가 부담 없이 환불이나 교체 요구가 가능하다. ACCC는 LG전자가 소비자의 권리

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보증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ACCC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으나 ACCC가 항소에 나서면서 위위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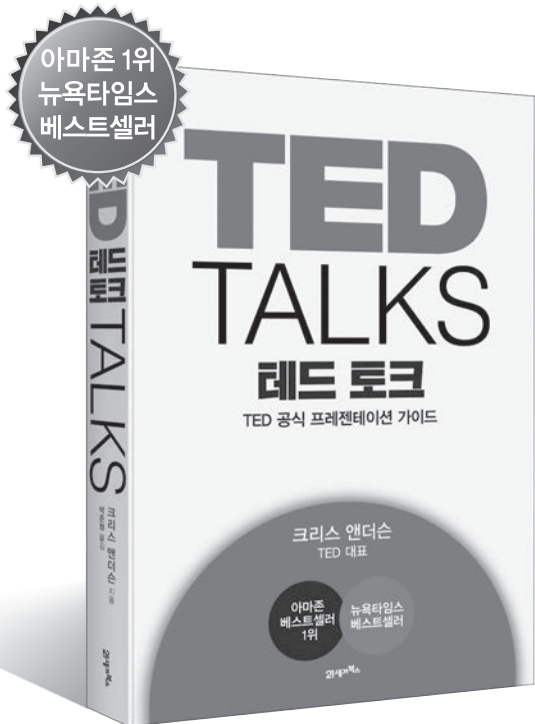
호주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LG전자가 소비자에게 2건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사라 코트(Sarah Court) ACCC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은 기업들에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

TED의 마법 같은 스피치 노하우!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18분의 기적



전 세계는 왜 TED에 열광하는가?

TED재단이 최초로 공개하는 공식 프레젠테이션 가이드

매년 TED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저명인사가 참여해 강연을 펼치는데, 아무리 유명한 강연자라도 18분 안에 강연을 마치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명 ‘18분의 기적’이라고도 불린다. 이 책을 통해 TED처럼 말하는 화술뿐만 아니라 크리스 앤더슨의 창의적 사고를 공유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TED에 관한 궁금증과 그 뒷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크리스 앤더슨과 TED팀 대중연설의 노하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뛰어난 연설을 위한 요리법이 있을까? TED팀은 간결함과 열정, 위트를 제한한다. 통찰력을 제공하는 대중연설을 위한 현대적인 가이드이다.”_켄 로빈슨(교육 혁신가, 『학교혁명』 저자)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명석하고 심오한 고찰이며 연설을 앞둔 사람들의 필독서다. 말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_애덤 그랜트(외트 스쿨 교수, 『오리지널스』 저자)

테드 토크 TED 대표 크리스 앤더슨 지음 / 값 16,000원



가수 오조, 김관 기자가 진행하는 팟백과 팟캐스트에서 **「이게 뭐라고」**를 검색해보세요.